

'임실N치즈하우스' 문 열었다 소아 야간 진료 도입 '총력'

군, 옥정호 출렁다리 일원 카페·치즈·로컬푸드 판매장 개점·本格 운영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 일원에 카페와 치즈·로컬푸드 판매장이 있는 임실N치즈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군은 28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임실N치즈하우스 옥정호점 오픈 기념식을 출렁다리 앞 광장에서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픈 기념식에는 심 민 군수와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및 의원,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유가공업체 대표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2022년 10월 출렁다리 개통 이후 120만여명이 다녀가며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인기가 많다.

실제 군은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고,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한 이후 대한민국 3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 이후에는 40만6천명이 찾은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37만7천여명이 방문, 연말까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계절 내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음식을 섭취하며 머물 수



임실군은 28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임실N치즈하우스 옥정호점 오픈 기념식을 출렁다리 앞 광장에서 가졌다.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과 먹거리가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에, 군은 출렁다리 인근에 2022년부터 34억을 투자하여 요산공원 편의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1층과 2층에 각각 판매장과 카페가 있는 편의시설 1동과 관리사무소 1동을 신축했다.

1층 판매장은 임실N치즈는 물론 임실염장김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도 진열되어,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치즈와 각종 지역 농특산물을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층 카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완벽한 뷰'를 선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옥정호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머무는 임실'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와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의 중심적인 옥정호 출렁다리 일원에 카페 및 판매장이 마련됨에 따라 명실상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다져나갈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2022년부터 34억원이 투자된 임실N치즈하우스가 임실치즈와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판매하고, 내년도에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여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임실만의 특화된 먹거리 공간이자 쉼터이니,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N치즈하우스 옥정호점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인구감소지역 지원 모형 발굴 채택 요청 등 최선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근거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모형을 발굴, 국가 예산 지원으로 소아 야간 진료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내 '개원 예정인 2025년 하반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인근 남원의료원에 소아 야간 진료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 현황조사와 인구 30만 미만에서 5만 이상 55개 시군과 인구 감소지역이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76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 200개 중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89개 지역의 26개 병원 가운데 소아 진료가 가능한 지방의료원 7개,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0명 내지 2명 근무로 소아 야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에서 5만 이상 55개 시군 중 16개 시군인 29%가 소아 야간 진료를 하고 있으나 8만 미만에 5만 이상 20개 시군에서는 1개 시군 5%만이 소아 야간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지역이면서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역 중북지역 76개 시군 중 37개 시군 49%만이 소아 야간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소아 야간 진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아환자 야간·야간 진료센터(사업명 달빛어린이병원)'는 전국 9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5개소 68%로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중에는 2개소로 3%에 불과한 실정과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원 근거로 남원시에서는 '소아 야간 진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모형' 2개를 발굴했다.

시가 발굴한 소아 야간 진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모형은 인구감소 지역 지방의료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범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침 내 인구 감소지역 지원기준 신설이다.

남원시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를 찾아 국가 차원의 지방방안 모색과 남원시 발굴 모형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을 3차례 방문하여 소아 야간 진료 도입 공동대응 결의 등 탄탄한 협력 체계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야간과 휴일에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박희승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소아 야간 진료 인프라 구축으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내년도 지역 제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남원시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5년 지역제조사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5년 사업 예정지로는 금동도립지구, 수지면 호곡지구, 대강면 강석지구, 대강면 평촌지구, 대강면 옥전지구, 대강면 송내지구, 대강면 사석지구, 사메면 사매2지구, 산동면 부절지구, 이백면 서곡지구 등 총 10개 지구를 선정하고 국비 872백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제조사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절차, 사업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출한 의견들을 사업 시행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사업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동의서 제출 협조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며, 일정은 △28일 사매2지구 △30일 호곡지구 및 강석, 평촌, 옥전, 송내, 사석지구, △31일 도립지구 및 서곡지구, △부절지구 등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강화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순창군은 지난 25일 청년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현업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위험성 평가 기법과 실습,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산업보호 업무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군은 앞으로도 위험성 평가, 사업장 순회 점검, 특수건강검진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과 현장점검을 추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민과 체육인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성료

임실군 체육의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2024 임실군민과 체육인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지난 28일 임실군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성대히 열렸다.

임실군체육회(회장 김병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및 의원,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체육 경기, 노래 경연, 체육 유공자 시상식,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체육 경기는 3개 회원단체가 참여해, 제기차기, 숫자타겟놀이, 대형고리걸기, 토스볼던지기, 400m 계주 등 5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점

심 후 진행된 노래 경연에서는 13개 팀이 참가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유공자 시상식을 올 한 해 임실군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단체 및 체육인에 임실군수 표창, 국회의원 표창, 임실군의회 의장 표창, 임실군체육회장 표창,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표창,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 등 6개 부문으로 개인 20명과 3개 단체가 수상했다.

심 민 군수는 "올 한 해 전국 단위 동호인 체육대회 및 선수단 전지훈련 등을 성공리에 유치하고, 특히 축제와 연계한 종목별 대회 유치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해 지역에 활력이 넘쳤다"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기반 시설 확대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K-웰니스 도시 재인증

도내 유일 획득 쾌거

순창군이 전국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K-웰니스 도시' 선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K-웰니스 도시' 선정은 몸, 마음, 정신이 균형을 이뤄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우리나라 대표 도시임을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은 2021년 전북 최초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한번 영예를 안게 되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순창군의 대표 웰니스 시설인 살랜드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군은 향후 3년 동안 전라북도의 대표 웰니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됐으며,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K-웰니스 데이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소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을 전북 대표 웰니스 도시로 재선정해 준 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순창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치유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10회 순창군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순창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진숙)는 지난 28일 구립체육관에서 제10회 순창군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순창군의회 군의원, 관내 4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학부모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각 센터에서 품행이 바르고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된 우수 아동 12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본격적인 체육대회에서는 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한데 어우러져 바지 터널 통과하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협동심을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산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